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영동군 스마트팜 건설현장 안전기원제 개최

성지연 기자 wldus2916@gmail.com

기사입력 2025.11.23 15:01:48 최종수정 2025.11.23 15:01:48



- 지난 21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개발제작한 안전개비(회전식 안전 안내판)를 영동군 스마트팜 건설현장에 설치하고 있다.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는 지난 21일 영동군(군수 정영철)과 함께 영동군 양산면 소재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건설현장에서 무사고 무재해를 염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동군수와 도·군의회 의원, 유관 단체장, 농업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양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동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총 3개 사업(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청년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 지원사업)이다. 478억 원을 투입해 영동군 양산면 일원 약 10.7ha 부지에 첨단 시설원에 스마트팜(유리온실) 약 6ha를 조성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건설현장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2025년 10월 개발·제작 완료

한 '안전개비(회전식 안전 안내판)'를 설치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지속적인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현수 본부장은 이날 "영동 스마트팜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무사고 무재해 달성에 총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